

濟州 山水를 形象化한 漢詩 小考

부영근*

차례

- I. 머리말
- II. 濟州를 形象化한 漢詩 概況
- III. 濟州의 山水를 形象化한 漢詩
 - 1. 漢拏山과 그 周邊
 - 2. 正方瀑布와 그 周邊
 - 3. 그 外的 名勝
- IV. 濟州를 形象化한 漢詩의 性格
- 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조선시대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조 이래 남아있는 작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근거로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 작품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작품들이 가지는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제주도는 한반도 서남부 해상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의 섬이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대의 섬이긴 하지만, 그 이국적 풍취나 경관

* 영남대학교 강사

으로 인해 육지인의 주목을 받은 것은 근대 이후, 특히 해방 이후의 일이다. 해방 이후 제주 4·3사태로 역사적 주목을 받기도 하고, 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60년대 이후에 와서야 제주도는 신비의 섬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근대 이전에는 비록 우리의 땅이긴 하지만 사람이 주거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제주의 관리로 어쩔 수 없어 부임하거나, 혹은 유배로 불가피하게 갈 수 밖에 없는 곳이 제주도였다. 말하자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관광을 하거나 유람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거리상으로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교통상으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제주였다. 더구나 육지인이 그곳에 장기적으로 사는 것은 더욱 불가능할 정도로 육지의 상황과는 모든 것이 판이하였다. 이것은 문화 문물이 발달하기 이전인 상고 시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욱 심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근대와 비교적 가까운 1840년,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어 제주도 환경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벌레와 뱀까지 따라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반 자(半尺)나 되는 지네와 손바닥만한 거미들이 잠자리에 횡행하는가 하면, 처마에는 새끼 가진 참새가 날마다 뱀을 경계하여 지저귀곤 하는데, 이는 모두 북쪽 육지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5월 그믐 사이에는 대단히 무서운 비바람을 한 차례 겪었습니다. 이때에 기왓장과 자같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큰 나무는 뽑혀 넘어져서 뿌리가 서로 연했으며, 바다에는 파도가 새까맣게 솟아오르고 그 가운데서는 천둥소리가 일어나는지라,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나란히 하고 무릎을 맞댄 채 서로 꼭 껴안아서 마치 스스로 보존하지 못할 것처럼 여겼습니다.”¹⁾

유배 온 처량한 처지이어서 더욱 그러하겠지만, 추사 김정희가 느낀 제주도는 육지의 환경과는 너무도 달라서 도무지 정을 붙이고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19세기 중반 무렵도 그러하거니와 그 이전에는 더욱 정을 붙이고 살만한 곳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주도민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 정

1) 『阮堂先生全集』 권3 書牘, 與權轅齋敦仁. 참조.

착 적응하고 살겠지만, 육지인이 제주도에서 착근하여 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제주도 자체 내에는 제주의 환경을 기록할 문자적 교양을 갖춘 사람도 적었거니와 더구나 제주를 소재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추사는 일찍이 제주의 풍토와 인물이 개발되지 못한 원시적 황무지 상태이고 섬 오랑캐와 같으며, 그 중 빼어난 인물이 있어도 통감이나 맹자 등 두 종류의 서책만 읽으며, 이들을 지도할 변변한 스승조차 없다고 하여 인문학적 불모지임을 말한 바 있다. 이런 지경이고 보면 제주를 소재로 제주인이 스스로 한시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는 제주도민에 의해서 창작이 거의 전무한 것이 문학사의 사정이었다. 결국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는 제주도를 내방한 육지인에 손을 빌어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육지와는 너무도 다른 자연적 문화적 풍토와 환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이를 문학적 작품으로 형상하기도 하였다. 이 문학적 역사적 기록은 그 자체로서도 대단히 소중한 기록이거니와, 이 기록은 다른 문인 학자들에게 제주도를 소개하는 정보 제공의 역할도 하였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이국적 풍취를 동경하여 직접 유람할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臥遊를 통한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제주도를 답사하지도 않고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현재 문헌상으로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는 이미 고려 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고려초부터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가 창작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조로 들어와서는 더욱 본격적으로 작품이 창작되고 이는 한문학이 종식되는 근대 초기에까지 이어졌다. 특히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제주도를 직접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문학 창작도 활발하였다.

관료로 제주에 부임하는 목민관, 정치적 사태로 제주에 유배된 謫客, 개인적 사정으로 제주를 유람 및 방문한 사람 등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문학의 기록이 풍성

하게 되었던 것이 문학사의 실상이다.

이들 문학 작품은 그 자체 문학사의 소중한 자료이지만, 한편 특정 지역을 소재로 문학화 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지방문학으로서도 대단히 소중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목민관 혹은 유배객 및 유람객으로 제주도를 찾은 인물로 알려진 사람은 冲庵 金淨을 선두로 白湖 林梯, 葵窓 李建, 桐溪 鄭蘊, 淸陰 金尙憲, 北軒 金春澤, 凝窩 李源祚, 石北 申光洙, 秋史 金正喜, 雲養 金允植 등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유입되었고, 조선후기 들어 그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제주에 유입된 이들은 지금까지 육지에서 경험하지 못한 제주도 특유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체험을 하게 되고, 이 경이로운 체험과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곧 제주의 삶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예컨대 冲庵의 『濟州風土錄』, 白湖의 『南溟小乘』, 葵窓의 『濟州風土記』, 桐溪의 『濟州유배 시절 詩』, 北軒의 『因海錄』, 寓庵의 『南征日記』, 石北의 『耽羅錄』, 凝窩의 『耽羅錄』, 淸陰의 『南樑錄』, 秋史의 『濟州流配 시절 詩』, 瓶窩 李衡祥의 제주 목사 시절 詩, 雲養의 『淸陰晴史』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²⁾

이러한 기록은 조선후기 들어 士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따라서 당시 문인들은 중앙 집중적 집권 태도에서 벗어나 지방의 고유문화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문학인에 의해 개별 작품이 창작되어 제주의 고유한 문화나 환경 전통이 중앙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간에 변방으로 치부되

2) 출고, 「동계 정운의 제주 유배 시 고찰」, 『동아인문학』 제11집, 2006.

출고, 「백호 임제의 ‘남명소승’ 연구」, 『영주어문』 제12집, 2006.

출고, 「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 『계명한문학』 제14집, 2000.

출고, 「북헌 김춘택의 수해복의 한 국면」, 『한문학 연구』 17집, 계명한문학회, 2002.

출고, 「석복 신광수의 ‘탐라록’ 고찰」, 『영주어문』 제8집, 2004.

출고, 「일제 강점기의 지역 선비의 삶 밖에 채병원 선생의 삶을 중심으로」, 『동양예학』 제16집, 2007.

출고, 「지방문학으로써 석복의 한시」, 『동아인문학』 제6집, 2004.

출고,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탐라문화』 제29호, 2006.

출고, 「주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 시 고찰」, 『영주어문』 제11집, 2005.

어 도외시 되던 지방의 문화가 모든 부분에서 지방과 비교할 수 없는 서울의 문화와 대등한 자리에 놓이기에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위상이 재고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축적이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 작품들을 고찰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제주를 형상화한 조선시대 한시 작품들이 제주를 배경으로 한 전체 문학의 범주 속에 어떠한 위상과 가치를 지니며, 나아가 그것들의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II. 濟州를 形象化한 漢詩 概況

제주를 형상화한 작품은 시대와 장르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물론 來訪한 목적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작품 소재가 되었던 제주의 이국적인 명승고적과 그에 반하여 변방에 위치한 가난한 민중의 삶은 그들에게 진솔하게 비쳐졌고, 또한 그들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제주를 형상화한 작품을 세 가지 군으로 나눈다면 산수지리, 역사와 고적, 물산과 민중생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수와 지리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얘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외 역사와 고적, 물산과 민중생활에 관해 형상화한 작품들의 대강을 밝히는 것은 전체 논지를 잇는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제주도에는 고대국가 시절 이곳을 배경으로 세 신인이 태어나,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는 탐라국 개국 신화가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탐라의 역사가 이해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시의 소재로 적극 활용되었다. 그리고 조선조 들어, 제주가 유배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갖

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배객들이 들고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배의 역사가 형성되고, 이것은 시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 작품을 남긴 대표적인 작가 군은 제주로 부임했던 赴任官과 流配客들이다. 赴任官들은 자신이 주로 머물렀던 官衙, 公廡, 防護所들을 자연스럽게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유배객 또한 관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한 바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三姓穴은 탐라국 개국 설화의 현장으로, 제주도의 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따라서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 작품을 남긴 작자들은 三姓穴을 소재로 활용하여 무엇보다 창작활동을 많이 하였다. 金聲久의 <毛興穴次金淸陰韻>, 李源祚의 <三姓穴>, 金聲久의 <毛興穴次金淸陰韻>, 尹鳳朝의 <毛興穴次淸陰先生韻> 등과 같이 제주도의 설화가 남긴 현장을 역사적 소재로 부각시켜 많이 다루었다. 이처럼 탐라 역사의 상징인 三姓穴은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 작품을 남긴 많은 시인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과거급제 후 부친을 만나 뵙기 위해 제주를 내방했던 白湖 林梯(1549~1587)는 제주의 여러 곳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三姓穴을 찾았는데, 그곳의 느낌을 다음의 시를 통해 드러내었다.

昔有三異人	옛날에 세 분 이인이 계셨는데
湧出於茲島	이 섬에서 솟아서 나오셨네.
古穴餘鼎分	옛날의 구멍은 솔밭처럼 나뉘어졌는데
埋沒生春草	파묻혀 없어지고 봄풀만이 자라네.
(缺)	
奇蹤問未能	기이한 발자취 묻지도 다 못하여
日暮牛羊道	우양이 가는 길에 해가 저무네. ³⁾

주지하듯이 三姓穴은 탐라국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고대국가 시절 한 왕조의 기운이 모아져 금방이라도 몽클몽클 솟구칠 것 같아, 이곳에서 탐라국을 열었던 三乙那의 모습을 상상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세월 앞에 봄풀만이 무성한 모습에서 얼마간 무상함을 드러내었다. 길재 선생이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 데 없다'며 몰락한 고려왕조의 모습을 돌아보고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白湖 역시 역사의 뒤안길에서 비상감이 온 몸으로 파고들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제주도 에 대한 문학적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三乙那다. 耳溪 洪良浩(1724~1802)도 三乙那를 소재로 記文을 남기기도 하였거니와,⁴⁾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 三乙那는 주요한 문학적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제주도는 본토와 떨어져 역사 지리 등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것들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국적 환경을 바탕으로 길러진 문화와 풍속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주도의 이국적인 物産은 조선조 제주도를 다녀간 시인 묵객의 눈에는 매우 신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또한 이것을 시적 소재로 적극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였다.

육지와 다른 제주만의 물산 가운데는 말과 굴이 있으며 오늘날은 육지 어느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수선화도 중요한 물산 중에 하나이다. 그 가운데 말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굴은 제주를 대표하는 진상품으로 제주에 유배 왔던 桐溪 鄭蘊이 龍卵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수선화는 秋史 金正禧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작품 군을 살펴보자. 직접 굴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李源祚의 <詠橋四絶>, 正祖大왕의 <詠橋>, 宋相琦의 <蒙賜橋復用前韻示僚友>, 등이 있다. 말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金聲久의 <送歲貢馬有感>, 李元鎮의 <閱馬牛羊>, 李海朝의 <驅馬篇>, <山屯牧場點馬留宿村舍>, 蔡濟恭의 <蒙賜濟州貢馬>, 趙觀彬의 <馬屯> 등이 있다. 이처럼 제주를 대표하는 물산인 굴과 말은 제주를 찾은 많은 문인들의 시적 소재가 되었

4) 진재교,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제3부 2장 <이계(耳溪) 홍양호론(洪良浩論)>, 소명출판, 2001.

다. 이러한 제주의 특산물인 말과 꿀은 단순한 물산으로만 그치지 않는 다. 이러한 물산을 공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제주 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받기도 한다.

주지하듯이 아버지 인성군의 죄에 연좌되어, 제주에 유배 왔던 葵窓 李健(1614~1662)은 제주의 물산 중에 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주도의 공마에 대해 시로 읊기도 하였다.

海中牧役最爲苦	외딴 섬에 말을 기르는 부역 가장 힘드니
巖坑墜江猶不許	구덩이에 빠진 거나 강물에 떨어진 거나 가리지 않네.
通判但知充馬數	제주 통관 다만 말의 숫자 채움만 알아
不論流血害蒼生	피 눈물 나는 백성의 괴로움 개의치 않네 ⁵⁾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치열했던 전란은 임진왜란이었다. 치열했던 왜란을 겪으면서 조선 정부는 군마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따라서 제주도에 貢馬를 더 늘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貢馬를 담당하는 관리들은 군마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많은 무리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國馬場에서 기르던 말이 죽으면 온갖 계책을 내었다. 가죽으로 받지 않고, 꼭 말로 받아서 그 숫자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도 그런 폐해 중의 하나이다. 제주 민들은 말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작자는 바로 그런 장면을 여실하게 보여주려 하였다. 말은 제주의 물산이지만, 이는 자연적으로 나는 물산이 아니다. 정책적으로 제주에서 말을 기르도록 했던 것이다. 1구에서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말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말하고 있다. 2, 3구에서는 말의 숫자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당시 貢馬의 폐단에 대해서 묘사하였다. 건장한 말만이 아니라, 부상당한 말이나 죽은 말조차 숫자로 채워 넣기에 급한 제주통관의 부조리한 행위를 그려내었다. 4구에서는 이러한 부조리한 행위에 고통 받는 것은 제주 민임에도 불구하고 통관은 이러한 제주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고 묘사하였다.

5) 이건, 『葵窓集』 122권, <有鞭>.

얼마 뒤 제주안무사로 내려온 淸陰 金尙憲에 의해 이러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고발되는 계기를 낳는다. 어쨌든 貢馬의 폐단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窻窓은 친척을 죽여 족정을 면하려고 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시로 남겼다. 그는 좋은 종마를 관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을 멀게 하고, 관가에서 말을 징납하기 위하여 말 기르는 집의 처를 가두고, 자식을 때리는 등 하지 않는 일이 없는 현실을 백성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드러내려 하였다.⁶⁾

이상에서 제주의 산수를 형상화한 한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서 배경적 논의로 제주의 역사와 고적, 물산과 민중생활을 소재로 지은 작품들의 경향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로 제주의 고적, 민중생활에 관한 작품의 구체적인 예를 적시하지 못하였다.

Ⅲ. 濟州의 山水를 形象化한 漢詩

조선의 선비들은 風光이 좋은 산수자연의 모습을 보면, 마치 꽃을 찾아 모여드는 나비처럼 찾아들어 자신들의 감흥을 쏟아내었다. 이에 산수자연에 관한 수많은 작품들이 남겨져 있다.

제주에 들어온 많은 시인묵객들은 이유에 관계없이 제주의 이국적인 풍취에 감동되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그냥 지나침이 없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紙筆墨에 자연스럽게 손이 갔다. 제주도에서의 견문과 체험은 육지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이것은 단순히 경치가 주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뿐만이 아니다. 그들이 제주에 감동하여 시를 지은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는 도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의 빼어난 山水의 絶勝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시인묵객들의 수양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제주의 모든 곳이 絶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 특히 관심

6) 김상헌, 『南樵錄』, 11월 18일, 壬子.

의 대상이 되었던 곳은 漢拏山을 포함한 주변, 漢拏山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 정상에 내린 눈, 白鹿潭의 모습, 靈室 주변의 풍경, 五百將軍洞 등이다. 이러한 장소들을 포함한 수많은 漢拏山의 빼어난 모습이 시인에 따라 달리 읊어졌다. 그 외에도 城山, 山房山, 松岳山, 龍頭巖, 龍淵, 都近川과 곳곳에 산재한 많은 폭포들, 제주 주변의 빼어난 섬들은 시인 묵객의 손을 비껴갈 수 없었다.

1. 漢拏山과 그 周邊

제주의 산수를 소재로 지은 작품은 순수 자연의 이국적 소재를 가지고 지은 작품들이다. 숫자로 보면, 漢拏山과 白鹿潭, 그리고 그 주변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한 것이 가장 많다.

이렇듯 漢拏山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 것은 우선은 漢拏山이 제주의 상징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는 본토의 태백준령을 이어받아 국운이 하나로 모여진 곳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작품 군을 살펴보면, 漢拏山, 白鹿潭, 漢拏山의 길목으로 가장 길이가 짧은 등반로이기도 하고, 기암절벽이 유명한 靈室溪谷, 漢拏山 속에 들어있는 암자로 제주를 찾았다가 漢拏山을 오르는 과정에서 여러 시인 묵객들이 잠시 묵어가기도 했던 암자인 尊者庵을 소재로 지은 작품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소재에 따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같이 漢拏山과 白鹿潭은 제주도를 찾은 문인이면 거의 누구나 시적 소재로 읊은 곳이다.

<표 1> 소재별 분류

作家	作品
權近	漢拏山
金麟厚	漢拏山
金聲久	登漢拏山絶頂 白鹿潭
金成鐸	漢拏山歌
金 攸	漢拏山
金 紱	登絶頂 漢拏山 靈室 白鹿潭
李健	上漢拏山
李慶億	尊者庵 靈室遇雨
李源祚	重九日見拏頂白雪 白鹿潭 靈室石
李元鎮	尊者庵
李益泰	漢拏山
李增	祭罷登絶頂次金令丈韻
任觀周	白鹿潭
趙觀彬	登漢拏絶頂口號 漢拏山

다음에 몇몇 문인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怪異神人湧北巒 한라산 북쪽에서 신인이湧출한 일 괴이하다
 誰知淑氣此中蜿 이곳에 신령한 기운 서린 줄 그 누가 알았으랴!
 標連南極星羅拱 꼭대기는 남극에 이어져 서서 공수하고
 根壓東荒地軸盤 뿌리는 동쪽 거친 땅을 눌러 지축의 반석이 되었네.
 蟄湫有龍雲易暗 큰 용이 못에 웅크려 있어 구름이 쉬어 일어나고
 点峰餘雪夏猶寒 남은 눈이 봉우리에 점 찍혀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다.
 熊狐豹虎難容跡 곰 여우 표범 호랑이 있어 인간의 발걸음이 어려우니
 惟見冥鵬九萬攢 오직 구만리를 나는 큰 봉새들만 볼 수 있네.⁷⁾

7) 金麟厚, <漢拏山>.

金麟厚(1510~1560)가 漢拏山을 노래한 작품이다. 작자는 漢拏山을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국운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漢拏山의 당당한 위용을 묘사하였다. 마치 용이 승천을 준비하듯이 구름이 자욱하게 휘감고 있는 정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맹수들이 서리고 있어 오직 봉새만이 볼 수 있는 신령한 산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가 제주를 다녀간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직접 漢拏山을 보고 지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의 의의를 폄하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조선의 많은 시인묵객들이 燕行을 하지 않고도 중국을 다녀온 것처럼 쓴 작품들이 많다. 작품의 대상을 설정하여 특정 소재를 마치 목도한 양 그리고 있다. 금강산과 관련된 많은 작품들도 직접 가보지 않고 묘사한 것이 많은 것을 보면, 이 작품에 대하여 의미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오히려 직접 보지 않고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시인의 자질을 높이 사야할 것이다.

또 다른 작품을 보자.

頂上寒潭自在清	정상의 찬 못 본래부터 말끔하건만
洄盤難濯俗人纓	쟁반 같아 속인의 갓끈 씻기가 어려워
仙翁且莫回吾駕	선옹이여! 내 수레를 돌리지 말아다오!
曾足前身玉畧行	나도 전생에는 선계에서 노닐던 사람이니 ⁸⁾

八吾軒 金聲久(1641~1707)의 白鹿潭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제주 관관으로 왔다가, 漢拏山에 올라 白鹿潭을 돌아보며 지은 것이다. 1구에서는 白鹿潭의 맑은 물을 묘사하고 있다. 2구에서는 白鹿潭을 신선들이 노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3구와 4구에서는 자신이 마치 신선이 된 듯이 그곳이 선선이 노닐던 장소 같은 신비로움에 감동하며 신선인 양

8) 金聲久, <白鹿潭>.

노래하며 白鹿潭의 신비로운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2. 正方瀑布와 그 周邊

제주에는 여러 가지 絶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곳곳에 산재해 있는 폭포들이 각자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산수를 형상화한 많은 한시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이것은 아마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에서 활기찬 기맥의 흐름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李源祚의 <正房淵>, 李翊漢의 <正房淵>, <正方淵>, <正房瀑>, 李增의 <正方淵口占>, 李海朝의 <正方淵>, 金壽翼의 <正方淵>, 金 敞의 <天池淵>, 李元鎭의 <天池淵>, 李海朝의 <天池淵>, 李選의 <天池淵>, 李海朝의 <天帝潭>, 任觀周의 <天帝淵>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의 곳곳에 산재한 폭포들은 제주를 다녀간 문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다.

다음의 몇몇 문인들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雷動飛泉海作淵 우레 치며 나는 물줄기 바다에 못을 만들어
 悅然光景浩無邊 황홀한 광경 넓기가 한량없네.
 更看壁上青蓮句 다시 절벽 위의 이태백 시구를 올려다보고
 闕筆銀河落九天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진다는 말에 붓을 던지네.⁹⁾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던 金壽翼(1600~1673)이 정방폭포를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1636년 병자호란 때에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여 항전을 주장하였으나, 치욕적인 화의 성립 후에 斥和論者로서 스스로 근신하였다. 또한 1649년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으나 탐관오리로 탄핵 받아 嶺南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그는 서귀포에 있는 正方瀑布를 찾았다. 그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정방폭포의 웅대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9) 金壽翼, <正方淵>.

작자는 1구에서 正方瀑布의 모습을 처음 마주 대하고, 그곳의 위용에 눌린 듯 우레 소리를 내며 바다로 떨어진다고 표현함으로써 그 황홀한 모습의 여운을 남기려 하였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2구와 3구에서는 폭포 아래로 내려가, 밑에서 올려다보는 正方瀑布의 웅장한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내었다. 그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폭포의 모습이 ‘마치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듯하다’고 폭포의 벽에 새겨진 이태백의 시구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제주에 거침없는 남성의 기상을 드러낸 正方瀑布가 있다면, 여인의 소담스런 모습에 비유될 수 있는 天池淵瀑布도 있다.

白龍低首下長空 백룡이 머리 낮춰 긴 하늘을 내려왔다
 半壁青山靠巖雄 푸른 산 중턱에 웅장한 뇌성벽력.
 躍前漢通萬里 앞바다로 뛰어들면 만 리 길로 통할 듯
 世人誰識造化功 세상사람 그 누가 조화의 신비를 알까!¹⁰⁾

제주에 유배 왔던 李選(1632~1692)이 天池淵瀑布를 소재로 지은 한시 작품이다. 그는 송시열의 문인으로 스승과 운명을 함께하여, 1689년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권하자 기장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유배 도중 죽은 스승의 운명처럼, 자신도 배소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 역시 제주에서의 뚜렷한 행적은 남아 있지 않다. 그의 스승이 제주에 유배될 때, 그가 배행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작자는 1구와 2구에서 天池淵瀑布를 찾고 소담스런 외형의 모습에 상관없이 폭포가 가지는 웅장한 모습을 급하게 묘사하였다. 그리고 3구에서는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正方瀑布와 달리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얼마간 내를 건너야 바다로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뛰면 바다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비로움으로 승화시켰다.

10) 李選, <天池淵>.

3. 그 외의 名勝

제주의 서부지역은 한라산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있을 정도로 제주도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다. 따라서 산세와 어우러지는 뚜렷한 絶勝이 드문데, 해안과 맞닿은 곳에 나지막한 山房山이 있고, 그 속에 굴이 있으며 기암절벽이 지금까지도 絶勝으로 꼽힌다. 따라서 한시 작품의 소재로 적극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李元鎭의 <山房>, 吳廷賓의 <山房山(二首)>, 具齡錫의 <山房山>, 任觀周의 <山房山>, 韓鼎運의 <山房窟>, 元相堯의 <山房窟>, 鄭運經의 <山房窟>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山房山 역시 그곳을 다녀간 많은 문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다.

다음의 몇몇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四海環千里 사면에 바다가 천 리를 둘러 있고
 三山鼎半穹 삼신산 반공에 솟아 있네.
 乃知仙子所 신선 사는 곳
 天作一壺中 하늘이 만든 병 속임을 알겠다.11)

이 시는 특이하게도 평안도 龜城 출신으로 순조 때, 대정 현감을 지낸 元相堯(생물연대 미상)의 작품이다. 그는 1806년 7월 李宅觀의 후임으로 대정현을 맡았다가, 1809년 1월에 대정을 떠났다. 그는 1807년 5월에 임지에 가까운 산방산을 찾아, 암벽에 山房窟의 모습을 시로 지어 바위에 새겨 놓았다.

작자는 1구와 2구에서 산방산을 찾고 우선 그곳의 모습을 작은 한라산 처럼 받아드렸다. 그리고 3구와 4구에서는 그 안에 들어 있는 山房窟을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으로 묘사하고 선향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아마 제주에서도 가장 외진 서부지역에 우뚝하게 서 있는 山房山의 모습을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신비로운 기운으로 인식했기 때

11) 元相堯, <山房窟>.

문일 것이다.

다음은 山房山을 묘사한 작품이다.

石勢龍頭壓 바위가 용머리 누르고
 禪居鳥夢空 선방이 새 둥지를 빼앗았네.
 霽雲生鶴底 내뿜는 물 밑 맑은 구름 솟아나고
 靈液滴房中 신령스런 물방울 방 안에 뚝뚝 떨어진다.¹²⁾

이 시는 충청남도 海美 출신이며, 1820년 2월 朴師謙의 후임으로 정의 현감을 맡았다가, 1823년 3월에 임기를 마치고 제주를 떠난 具齡錫(생몰연대 미상)의 작품이다. 그는 재임 중에 유생들에게 학업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1822년 3월 따뜻한 봄 날 山房山을 찾아, 그곳의 절경을 오연 절구로 짓고, 시 구절을 바위에 새겨놓았다.

작자는 1구에서 山房山을 둘러보고 온통 바위로 둘러싸인 외형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2구에서는 그곳 바위 동굴 안에 스님이 거처함을 자연과의 조화를 깬다고 짜증을 내었다. 3구에서는 그도 잠시 山房山의 웅장함에 도취된 듯 물 아래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신비롭게 쳐다보았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오라리 부근은 漢拏山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이곳에 경치가 빼어난 계곡이 있는데, 바로 '瀛洲十景' 중의 한 곳인 瀛邱이다. 기암절벽이 좋아 제주를 찾은 수많은 관리들이 틈틈이 이곳을 찾아 풍류를 즐기고, 바위에 시를 새겨놓았다. 예전에는 이곳을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여겼다. 이곳 역시 제주 관련 많은 한시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작품으로 구현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李益泰의 <登瀛邱>, 金緻의 <登瀛邱>, 李義謙의 <登瀛邱>, 洪重徵의 <登瀛邱>, 李源達의 <登瀛邱>,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瀛邱'는 漢拏山의 입구며, 신선계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여겨지던 곳이다. 많은 시인들은 '瀛邱'에 대한 작품을 다수 남기고 있다.

12) 具齡錫, <山房山>.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雙溪直下漢拏中	한라산에서 두 줄기 냇물 바로 내려
會台臺前燕尾洞	대 앞에서 바로 모여 연미 마을로 흘러든다.
岩面噴潭磨似鏡	못에 비친 바위는 갈아 놓은 거울인 듯
石門跨壑臥如虹	돌문은 골짜기를 걸터앉아 무지개가 돌린 듯하네.
落霞殘照秋容淡	석양에 노을 내려 말끔한 가을 경치
琪樹懸崖暮色紅	벼랑에 매달린 나무엔 저녁노을 빨갱다.
絕境天際應有意	빼어난 경지를 하늘이 아끼는 것은 뜻이 있으니
清遊此日是仙翁	오늘의 놀이로 내가 바로 신선이 된 듯하네. ¹³⁾

이시는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李益泰(1633~?)가 瀛邱를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조선조의 문신이며, 자는 大裕, 전주 태생으로 본관은 延安이다. 1694년 7월에 李基夏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696년 9월에 제주를 떠났다. 재임 중인 1694년에 演武亭, 運壽堂을 중수하였고, 1695년 봄에 文正公 宋時烈을 橘林書院에 배향한 인물이다. 그는 瀛邱에 올라 그곳의 절경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작자는 1구와 2구에서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인 瀛邱에 와서, 漢拏山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곳 瀛邱의 계곡으로 흘러드는 것이 마치 漢拏山의 기운이 한곳으로 모인다고 여겼다. 그리고 계곡과 어우러진 바위의 모습을 통해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5구와 6구에서 얼마동안 그곳에 걸터앉아 바다로 지는 반대편 석양의 모습을 인간세상의 모습인 양 관망하다가, 자신이 이제 막 신선이 된 듯이 그곳과 동화되려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絶勝이며, 수호신 역할을 하는 龍頭巖은 그곳을 소재로 활용한 작품이 그 위상과 상징성에 비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龍頭巖은 지금도 제주를 대표하는 산수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林亨秀의 <龍頭巖>, 任觀周

13) 李益泰, <登瀛邱>.

의 <龍淵> 등이 있다.

주지하듯이 白湖 林梯(1549~1587)가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 것은, 당시 濟州牧使로 있던 부친 林晳을 만나 뵙기 위해서였다. 白湖는 대과에 급제한 직후인 그의 나이 28세로, 1577년 11월 초순에 제주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 여행길의 여러 체험을 통해 『南溟小乘』이라는 日記體의 紀行詩文을 남겨 놓았다. 『南溟小乘』은 산수유기적 성격이 중심이지만 風物誌的 성격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면의 일단을 11월 27일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부분에서 제주도의 위치와 두 개의 縣 및 三鎭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¹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임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¹⁵⁾ 또한 토질 및 동물 분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민간의 풍속과 특이한 語音, 해산물과 과실 등 특산품에 대해서도 언급이 미치고 있다.¹⁶⁾ 그리고 그는 제주의 명소를 다녀보고, 그것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시화하기도 하였다.

海畔巖屹石	바닷가에 삐죽삐죽 높이 솟은 돌인데
龍頭漫設名	용두암 이름은 부질없이 지었구나.
洪濤日夜擊	커다란 물결이 밤낮으로 때리니
猶作風雷聲	마치 바람과 천둥소리 같구나. ¹⁷⁾

이 시는 白湖가 제주도의 명소 중에 하나인 龍頭巖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龍頭巖은 제주를 대표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제주의 상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작자는 전반부에서 소문이 무성한 龍頭巖의 위상을 한번 보고 실망한

14) 林梯, 『南溟小乘』. 島在國之正南 而漢拏山峙其中, 張左右翼如一字橫浦, 濟州一鎭在北而際海, 與頭無括相對, 旌義縣在右翼之南, 大靜縣在右翼之南 而三鎭爲鼎足之勢, 各據北東西南三隅.

15) 林梯, 『南溟小乘』. 所蓋島間於中原倭島 而倭寇之往來中原也, 必由濟州楸子之間 則島之東西, 爲要衝而防護之緊不在南, 可乎.

16) 林梯, 『南溟小乘』. 11월 27일.

17) 2월 16일, <龍頭巖>.

듯 뻘죽뻘죽 바닷가에 높이 솟은 돌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승천하는 용의 이미지를 살려 龍頭巖이라고 한 것은 너무 과칭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그도 잠깐 커다란 물결이 설 새 없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보라와 천둥소리 같은 파도 소리가 용의 승천하는 기상을 느끼기에 충분함을 깨닫고, 거침없고 호방한 자신의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제주의 상징인 漢拏山과 그 주변, 漢拏山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瀛邱, 龍頭巖, 正方瀑布를 위시한 많은 폭포들, 山房山 등은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어 각각의 특유한 모습이 시로 형상화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작품 외에도 제주 산수를 형상화한 한시 작품에는 제주의 다양한 산수를 소재로 지은 작품이 많이 남아 있다. 제주, 길목, 정의, 조천, 성산의 모습, 인근의 섬, 각종 산과 봉우리, 곳곳에 산재한 사찰과 암자, 제주로 들어오는 과정과 뱃길, 비, 계절의 변화, 계곡을 소재로 지은 작품 등 제주 산수를 형상화한 다수의 한시 작품이 남아 있다.

이것들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소재별 분류

作家	作品
高得宗	歸觀濟州遇風漂海作
高兆基	書雲巖 山莊夜雨
郭期壽	方巖
權近	耽羅
金應南	濟州有吟
金宗直	毛羅歌
金昌鉉	耽羅竹枝詞
睦長欽	朝天

閔粹	耽羅題詠
吳廷賓	秋晴
柳思瑗	旌義題詠
尹鳳朝	舟行一晝夜曉泊瀛島 自寶吉島發船向耽羅
李健	海望
李觀命	題瀛州園
李民歲	耽羅 瀛洲途中 朝天 過末峴 松嶽山 浮海耽羅 海上
李承憲	宿新豐書齋
李源祚	橋來路中
李元鎮	方巖 同李緇衣登高 登高
李昶義	留新豐戀鄉而吟
李海朝	城山 牛島
任觀周	蒼川
林悌	旌義題詠
鄭昱	朝天
崔溥	耽羅詞
韓昌裕	玉溪 玉溪逍遙

이처럼 제주의 곳곳은 제주에 온 많은 시인 묵객의 눈에 새로운 체험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그들은 다양한 소재들을 나뉘는 시각으로 형상화하였다.

IV. 濟州를 形象化한 漢詩의 性格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 작품들은 크게 내용적으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한다. 여기에 소재의 공통성이 결부되어 일정한 경향성을 띤다. 이것은 창작 문인 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대략 제주와 관련된 작품의 담당 층

은 내도한 이유에 따라 赴任官, 流配客으로 갈리는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작자들은 정서적으로 자기의 내도 목적과 부합된 시각으로 제주를 바라다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제주를 찾은 赴任官들은 목민관의 심정으로 제주 백성들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그것에 따른 牧民官의 심정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유배객들은 얼마간 비관적인 시각으로 당시 변방의 아픔을 공유하려는 의식을 드러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인식의 측면에서 비슷한 정서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공통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작품에는 제주만이 가지는 이국적인 소재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민폐의 원인이 되는 제주에서 중앙에 바치는 공물, 예컨대 말, 전복을 포함한 해산물, 감귤 등의 토산물을 가지고 작품 창작의 소재로 많이 활용하였다. 제주라는 고립된 특수한 환경에서 제주만이 가지는 절경들은 이방인의 눈에 새롭고 신기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도한 사람들은 그것들에 폭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작자들은 이러한 소재를 간과하지 않고 작품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전래되는 경향성을 띠기도 한다. 예컨대 제주를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해로를 거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적절히 묘사하였고, '濟州十景'이라고 일컬어지는 절경들과 그 밖의 한라산과 산재되어 있는 瀑布, 公廩, 防護所 등 많은 제주만이 가지는 독특한 절경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작자들의 눈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 작품들 중에 내용상으로 공통적인 정서를 지닌 작품들은 시대를 거치면서 계승되어 창작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林梯의 <迎郎曲>, <送郎曲>은 제주의 풍속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79년 濟州按察兼巡撫御使로 임명되어, 제주를 찾았던 李增과 1711년 제주관관을 지냈던 南九明 등에 의해 계승 창작 되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그 외에도 申光洙는 지방의 착취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潛女歌>, <濟州乞者歌> 등의 시를 지어 당시 변방의 황량한 모습을 거름 없이 드러내었다. 이 작품들은 지식인으로서의 불합리한 사

회고발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직접 목도하지 못해서, 현실감이 어두워 묵과되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려는 작가정신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들이 지방의 모습을 여과 없이 임금에게 보고하려는 『詩經』이래 나타나는 '採詩觀風'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얼마간 시대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주지하듯이 조선 사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방면에 걸쳐 봉건 말기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봉건 지배질서의 완만한 붕괴가 진행되는 한편 이와는 상대적으로 근대 지향적인 역사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서로 충돌하는 시기였다. 특히 사회 경제적 격변으로 인해 사회적인 모순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격변속의 1의 존재는 관료 사회의 특수성, 정치사회의 변화, 경제적 몰락 등의 원인으로 그들의 경제적 삶은 말이 아니었음이 역사적 사정이었다. 그리하여 생업을 가질 수 없는 신분 사회의 특수성은 독서인으로서의 지식밖에 갖지 못한 1에게 생존의 위기를 맞아 행동 양태를 달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일정 부분 권위주의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일부 1계층은 당시 학문이 변화하는 현실을 옹계 인식하고 설명할 기능을 상실한 채,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이론으로서의 虛學이 절대불변의 고정적인 것이 되어,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비판 부정하고, 학문은 모름지기 실제 사물에 나아가서 거기서 참다운 이치를 찾아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¹⁸⁾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선후기의 시는 조선 초기 이래 한시의 발전 양상에 비할 때 변화가 많고,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 기존 시의 범주에서 이탈한 새로운 내용과 형식, 사고가 다채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 시기 시가 보인 다종다양한 양상의 요인을 사회적으로 분석해 보면, 작가

18) 김철조, 『박지원의 산문문학』, 대동문화연구총서2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의 신분 상, 지위 상의 다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고려 이후로 시인은 대체적으로 ‘士’이면서 ‘大夫’였다. 즉 공부하는 선비이면서 관리 그것도 대체적으로 고관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예외적 존재가 적지 않지만 큰 테두리는 그러하였다. 조선중기만 하더라도 그 틀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상황은 그러한 작가적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 빼어난 시인이면서 동시에 고관인 작가가 없지는 않지만, 중요한 시인의 사회적 지위가 예전 시인의 그것과는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시인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시인의 사회적 위상이 격하된 현상은 그대로 시의 내용과 정서, 형식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후기 들어 시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 변화가 주목된다. 지배 권력층으로부터 소외된 시인 군의 대거 등장을 들 수 있다. 17세기 중반 이래 격화된 당쟁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는 노론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소론이나 남인에 속한 사대부는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며, 경제적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처지가 되었다. 노론에 속한 사대부라 하더라도 벌벌과 인적 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는 권력과 경제적 이득으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한 당의 인물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득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몰락한 당에 속한 인재들은 학문과 문학에 힘을 기울임으로서 조선후기 학술과 문학의 중요한 성과는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주지하듯이 사대부 문학으로서 한시는 안정되고 여유 있는 삶과 아름다운 자연 경물의 음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대부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였던 조선중기의 한시에서는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그러한 한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여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조선후기 시인 군의 사회적, 신분적, 정치적 기반이 변화한데 기인한다. 조선후기 시의 기본적인 주제의 하나인 상실감과 소외감은 시인의 사회적 기반 변동에 정서적으로 상응한다. 시인들

은 불평의 심경, 민간의 삶에 대한 친화감, 엄격한 격식으로부터의 이타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데, 그러한 특징은 시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처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요컨대 조선후기는 시인의 사회적 지위의 分岐가 어떠한 시대보다 촉진되었던 시기다. 시인들의 사회적 분기는 시인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과 그들이 시를 대하는 태도의 상이함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한시의 다채로운 발전에는 이러한 요인이 숨겨져 있다.¹⁹⁾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의 성격을 얘기하면, 조선시대 다양한 시 흐름의 이국 풍물을 묘사한 풍속시의 하나로 지방문학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특이한 풍물과 자연풍광을 통한 한시의 지역 내지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동시에 조선시대의 한시와 기록문화의 특징과 지리지로서의 성격과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앞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논문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앙과의 교통이 소원하였던 곳이다. 자연적으로는 기상이 불순한 지역으로 흉년이 잦아 생활조건이 좋은 편이 못되었다. 따라서 제주 민의 생활 조건도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문화적으로도 타 지역과의 소통이 적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島嶼 문화를 계승해 왔다. 따라서 제주에 온 赴任官이나 流配客들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였고, 여기서 겪은 체험의 기록을 자세히 남긴 바 있다.

赴任官이나 流配客들이 제주에 들어온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기보다 특별한 체험에 속하였다. 이들이 평생 무탈한 삶을 살았다면 새로운 공간에서 체험하면서 창조적 저술활동을 할 기회가 적었을 것이다. 그들은 절해고도인 제주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이곳에서의 특별한 체험과 정서를 문

19)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 사 연구』, 소명출판, 1999.

학으로 포착함으로써, 주옥같은 작품을 남긴 바 있다. 이러한 문학의 산생은 한문학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문학이란 생활의 반영이며, 작가의 생활적 체험을 문학적으로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 체험의 농도와 곁에 따라 작품의 성취도 달라진다고 할 때, 이 점에서 제주를 형상화한 작품들은 다른 문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역민의 삶과 생활 정서의 진실성을 찾아 볼 수 있는 점은 소중한 성과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설적으로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 작품들은 조선조 한문학의 중심이 아닌, 주변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주로 제주의 山水 地理, 歷史와 占蹟, 物産과 民衆生活의 소재를 통해 창작되었다.

이상의 성과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선후기 들어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이들은 기존의 틀인 중앙 집중적 집필 태도에서 벗어나 소재와 대상의 확대를 통해 지방의 고유문화를 그들의 전문적인 역량으로 변방의 문화, 아니 제주의 고유한 문화나 풍물이 작품화되어, 중앙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문학사적 큰 의의라고 할 것이다. 현대적 측면에서도 그 간에 중앙에 집중되었던 연구의 역량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여, 제주 한문학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 핵심어: 제주의 산수지리, 역사와 고적, 물산과 민중생활, 지방문학, 제주한문학

<참고문헌>

- 김정희, 『阮堂先生全集』.
- 이 건, 『葵窓集』.
- 김상헌, 『南槎錄』.
- 임 재, 『南冥小乘』.
- 진재교,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제3부 2장 <이계(耳溪) 홍양호론(洪良浩論)>, 소명출판, 2001.
- 김철조, 『박지원의 산문문학』, 대동문화연구총서2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 사 연구』, 소명출판, 1999.
- 졸 고, 「동계 정운의 제주 유배 시 고찰」, 『동아인문학』 제11집, 2006.
- 졸 고, 「백호 임제의 '남명소승' 연구」, 『영주어문』, 제12집, 2006.
- 졸 고, 「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 『계명한문학』 제14집, 2000.
- 졸 고, 「북헌 김준택의 수해록의 한 국면」, 『한문학 연구』 계명한문학회 17집, 2002.
- 졸 고, 「석북 신광수의 '탐라록' 고찰」, 『영주어문학』 제8집, 2004.
- 졸 고, 「일제 강점기의 지역 선비의 삶-낙애 채병원 선생의 삶을 중심으로-」, 『동양예학』, 제16집, 2007.
- 졸 고, 「지방문학으로써 석북의 한시」, 『동아인문학』 제6집, 2004.
- 졸 고,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탐라문화』, 제29호, 2006.
- 졸 고,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 시 고찰」, 『영주어문』, 제11집, 2005.

<Abstracts>

A Study on Sino-Korean Poems Visualizing Jeju

Boo Young-Kun

Literary works which visualize Jeju have been created continuously beyond ages and genres. Even if they wrote records of various types depending on the visiting purpose, they saw both the places of natural beauty and historic interest and the humble life of common people living in remote regions, and depicted them on their writings without omiss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Sino-Korean poems visualizing Jeju are essential for us to understand the periphery, not core, of Sino-Korean Literature of the Chosun Dynasty. Those works mainly dealt with such subjects as mountain, water, geography, history, historic places, products and life of common people.

As the society in the late Chosun Dynasty changed drastically, scholars deviated from the traditional centralized writing attitude, and expanded the subjects and objects of writings to unique local cultures, thereby creating works based on the unique culture and natural features of Jeju and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them to the metropolis. Thi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Even from the modern perspective, it is a good opportunity to reveal the Sino-Korean literature on Jeju completely by allocating the capability of study - which has been focused on the metropolis so far - to local areas.

- Keywords: Natural features and geography of Jeju, history and historic places, products and life of common people, Sino-Korean literature on Jeju